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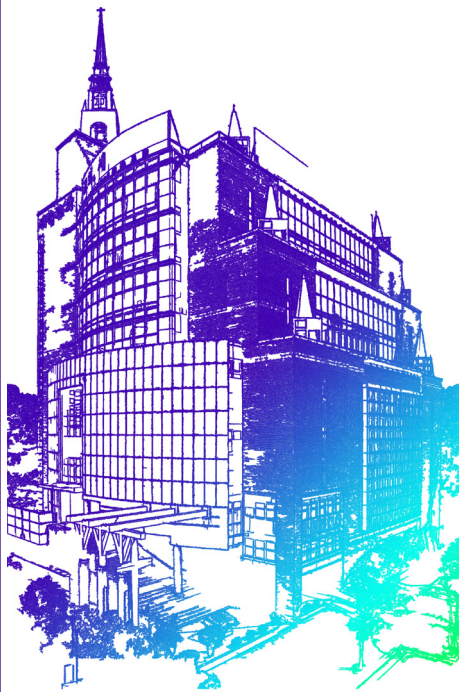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II

(미가 7:1~13)

원로목사이종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자신과 목자를 동 일시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 람입니다.

1.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2:12, 4:6-8, 5:4, 7:14). 목자가 다스릴 때 양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 도와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 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그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 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양은 잘 늙지 않는 짐승으로 두려움과 긴장과 공격 과 배고픔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늙는다고 합니 다.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시며 푸른 초 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당신의 양으로 하여금 쉬게 하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 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 서”(12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미가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 다. 그래서 목자가 잘 인도하지 않으면 황량한 벌판 가 운데 버려져 죽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가 인도 하면 그곳을 떠나지 않아서 인도한 그곳에서 풀의 뿌 리까지 뜯어 먹어서 주변을 황량하게 만들어 버립니 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방향 제시를 잘하고 정말로 조 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짐승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성도는 매우 똑똑한 것 같으나 실상은 모두가 미련 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있는 한 안전합니다. 양은 겨울에 낮은 골짜기에서 거하며 여름이 되면 높은 등성 초장이 있 는 곳으로 옵니다. 목자는 위험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 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또 목자는 양들이 초장으로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모든 독초를 제거하고 사나운 짐 승들을 쫓아내며 그 곳을 안전지대로 만듭니다. 목자 는 이렇게 양들에게 안전을 주고 기쁨과 평화를 줍니 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천국까지 준비합니다. “내 평생 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 23:6). 이것은 매 우 위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밤낮 으로 그를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 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습니다.

그 날에 우리 모두는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 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6-17)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무한하지 못해서 반드시 한계상황에 부딪히 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심판과 구원과 인도하심을 말하 던 미가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말합니 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 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 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 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17-18절).

미가 선지자는 죄인 된 인생임을 먼저 자인하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을 계속적 으로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는 사 람의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 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나중에는 죄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 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 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 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요일1:9),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는 너희로 죄 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요일2:1).

죄를 범하고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계속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 는 하나님 앞에서 버린 자식이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 를 지키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힘입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치세 기쁜 소식!

성탄축하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시,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찬양예배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며, 임마누엘찬양대에서 임범창 집사의 지휘로, 로이드 라르손(Lloyd Larson)이 작곡한 『외치세! 기쁜 소식!』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또한 다음 주 24일(주)은 성탄주일로 찬양예배 시간

에 유·초등부와 사랑부의 성탄축하찬양을 가지며 예배 후 당회원 장로들의 산타 선물 증정 순서가 진행된다.

성탄절 당일 25일(월)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25일 성탄절 축하예배는 오전 11시에 한번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2018년을 섬길 일꾼들

지난 주 우리교회는 2018년을 이끄는 일꾼들을 임명하였다. 스테반회는 회장 차영도 집사, 부회장 예산식 집사를 각각 임명하였고 제1권사회와 제2권사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권사회로 만들고 권사회장에 김찬진 권사를, 부회장에 김인숙2 권사를, 살림권사회는 회장에 양옥자 권사를, 부회장에 이은희 권사를 임명하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봉사하기 바라며 많은 성도들의 협조,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테반회 회장 차영도 집사



권사회 회장 김찬진 권사



살림권사회 회장 양옥자 권사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법시 예매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 158조),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에스더전도회 교구간사회 이규희 안재선 / 문수자 김원중/이갑연 이수우 정현구/최복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12월 세례식 오늘 찬양예배 시

2017년 12월 세례식(세례, 유아세례, 개종, 입교)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거행된다.

교구 총회 오늘 오후 3시 30분 / 본당

오늘 교구 총회가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열린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과 협조 바란다.

오정수 장로 무혐의 처분

2017년 2월 17일 무혐의 판결에 홍성주 장로 외 6인이 항고한 건 모두 혐의 없음 - 불기소

오정수 장로에 대하여 홍성주 장로 외 6인이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건 모두 지난 2월 17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고등법원에 항고하였던 건 역시 지난 12월 11일 자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홍성주 장로의 6인은 오정수 장로가 원로목사 사택에 대한 근거당 서류를 위조하고, 임의로 원로목사 사례비를 지급하여 교회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아가페타운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구입하고 이중 6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모든 사실에 대해 고등법원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고소 내용 모두가 어불성설이지만 특히 교회에서 원로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불법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목회에는 은퇴가 없다며 원로목사는 퇴직금 일체를 받지 않았고, 광장동 사택도 교회에서 살라고 하는 날까지만 살겠다며 소유권을 극구 사양하며 교회 소유로 하라'는 원로목사의 행동을 비추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박노철 목사 측은 '박노철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자질 문제와 빛나간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안일을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도구 삼은 것'으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것이 서울교회 분쟁의 본질인 것을 흐리기 위해 재정비리를 이슈로 삼은 것이다.

박노철 목사 측은 그간 수많은 허위사실로 성도들을

서울교회 분쟁의 본질은 박노철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자질 문제 빛나간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안일을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도구 삼은 것

호도하고 노회와 총회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에게 명예훼손 계류 중에 있는 '맹꽁이시리즈'와 자체적으로 만든 책자를 돌렸고, 언론 플레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야합하며 한국교회를 혼탁하게 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바른 판단을 했다. 총회는 지난 9월 14일, 박노철 목사의 청빙무효, 15일 장로 선출 무효, 안식년에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비록 재심이 개시됐지만 현재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 임직 권한, 서울교회 재정 통장 입출입 권한을 제한한 상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날에 서울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므로 서울교회는 평안으로 일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있지만, 거짓말로 시작한 저들의 꾀계의 말로가 어찌할지는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신다.

서울교회는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소송에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쏟기에도 부족한 성도의 힘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박노철 목사 측은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므로 제 갈 길을 갈 것이며, 더 이상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

발행번호	2-210-2017-24769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930-3114	
분류기준	2017. 12. 11.
수신	오정수
제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7 형제27216호
② 고소인성명	홍성주 외 6명
피의자	⑤ 성명 오정수 (의13543) ⑥ 주민등록번호
④ 죄명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입)
④ 처분권사	판결부
⑦ 처분년월일	2017. 12. 7.
⑧ 처분요지	가.혐의없음(중거불응분)
⑨ 불기소이유	혐의 불요
⑩ 비고	

이번 12월 11일에 나온 오정수 장로 무혐의 판결문

발행번호	2-215-2017-35564
의정부지방법원 (전화번호 031)820-4200	
분류기준	2017. 2. 17.
수신	오정수
제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 형제49458호
② 고소인성명	홍성주 외 6명
피의자	⑤ 성명 오정수 (의13543) ⑥ 주민등록번호
④ 죄명	혐의 불요
④ 처분권사	판결부
⑦ 처분년월일	2017. 2. 16.
⑧ 처분요지	혐의 불요
⑨ 불기소이유	혐의 불요
⑩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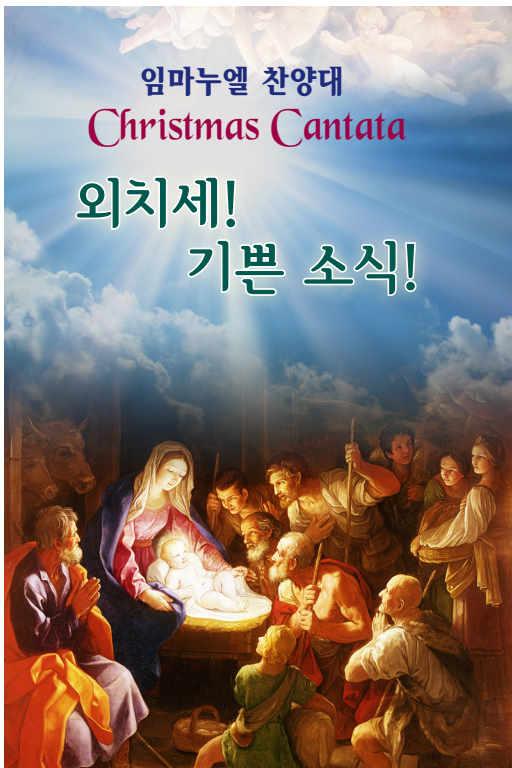
지난 2월 17일에 나온 오정수 장로 무혐의 판결문 순례자 1307호(2017년 2월 19일) 참조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절 셋째 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6:7)



임마누엘 찬양대 Christmas Cantata

외치세! 기쁜 소식!



김성준 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부대장)

12월이면 캐롤송이 거리 거리에 울려 퍼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한 해를 마무리 했는데 언제부턴가 저작권 문제로 그나마 거리를 메우던 캐롤송도 들리지 않게 되어 예수님 탄생일이 매우 적막해졌습니다.

근래 세상도 교회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 안까지 파고든 세속주의와 맘몬주의적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을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찌기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제 목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찬양예배 시 칸타타 "외치세 기쁜소식!" (Lloyd Larson 곡)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칸타타는 희망과 약속의 메시

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의 세계로 옮겨 줄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을 기다리며 속박과 흑암 속에 살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혼돈과 불의한 시대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 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믿음을 이어 받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저들의 믿음을 지켜나갈지 우리 모두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서교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토록 평안하고 건강하던 교회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 아직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이 저녁만큼은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부르시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승리의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스토리 Christmas story



유수진 집사 (유·초등부 찬양 지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초등부 연합찬양대 아이들은 매년 10월부터 찬양을 준비합니다. 올해는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야기를 담은 'Christmas story'를 비롯해서 총 3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총 37명의 아이들이 매주 유·초등부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 8층에서 점심을 먹은 후 1시부터 연습을 합니다. 한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는 율동을 하면서 연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그 시간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제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일 찬양과 율동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일 찬양 발표가 끝나면 성탄 축하 발표 연습은 언제 시작하는지 묻는 아이들, 뮤지컬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는 아이들, 솔로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아이들, 그런가하면 연습을 시작하기도 전에 몇 시에 끝나는지 묻는 아이들을 보며 이 아이들이 훗날에 이 찬양 연습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기억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퀴즈 시간도 갖고 게임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성탄축하찬양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주 유·초등부 교사 및 학부모님들께서 간식을 손수 준비해주시고, 매번 악기로 수고해주시는 청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매년 성탄절이 그렇지만, 이번 성탄절은 유·초등부 아이들과 도와주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또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특별하게 넘치는 성탄이 되길 기도합니다.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교육전도사 두 분 청빙키로

김은숙 전도사 · 박미라 전도사

우리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전도사 두 분을 청빙키로 사와 박미라 전도사이다. 간단한 약력 및 말을 부서는 하였다. 이번에 청빙하는 교육전도사는 김은숙 전도 다음과 같다.



김은숙 전도사

-유아·유치부 지도-

·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박미라 전도사

-유년·초등부 지도-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년 3월 입학예정

호산나대학,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김장행사' 진행



지난 6일 호산나대학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2017-2018 제6지역 6개 클럽, 20여명의 회원들과 호산나대학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평지역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계획되었고 라이온스클럽에서 김장을 위해 150만원 기부하였습니다. 특히, 호산나대학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배추 1,300포기로 김장을 담아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엄현석 지역부총재(354-A지구 6지역 부총재)는 "이번 6지역 합동봉사 활동을 발달장애인의 고등교

육을 책임지고 있는 호산나대학에서 진행하게 되어 기쁘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나눠줌으로써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라이온스클럽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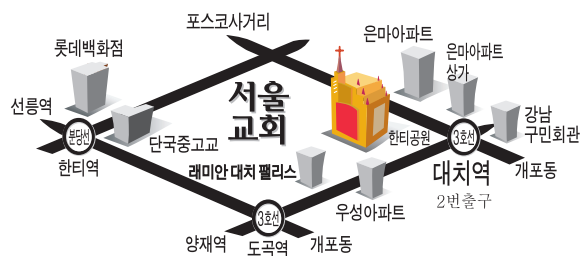
호산나대학과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호산나대학 교직원들은 대학 홍보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7년 3월부터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에 가입해 '호산나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성탄 축하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는 임마누엘찬양대의 성탄 축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임범창 집사의 지휘로 성탄절칸타타 "외치세! 기쁜 소식(Lloyd Larson곡)- 말씀과 노래 속의 성탄 메시지들"을 아멘관현악단과 함께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윤지 집사, 피아니스트 이주희 성도, 솔로이스트 박인화 대원이 함께 연주한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23일(토) 몽골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사회 성탄감사예배 설교한다.

■ 수상: 박정선 은퇴장로 (단국대 음대 명예교수/작곡가)는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한예총)에서 올해의 음악부문 "예술문화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평창동계올림픽 G-50K -Artist Festa(전국문화예술인페스티벌)이 열리는 황성문화체육공원에서, 12월21일(목) 오후 4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 득남: 15교구 임태성 성도 전수진 성도 12월 15일 (전광영 집사 김인숙2 권사 장녀 가정)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2. 임명된 성김위원들의 헌신으로 각 위원회와 교구와 교회학교와 부서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